

## 주요 내용

### 1.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개신교인 신앙 성장 도움 요인, '예배/설교' 줄고 '미디어' 가파르게 상승!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2023 추석 계획
- 2) 고령자 특성과 의식 변화
- 3) 아동·청소년 우울증 실태



# 개신교인 신앙 성장 도움 요인, ‘예배/설교’ 줄고 ‘미디어’ 가파르게 상승!

지난 넘버즈에서는 ‘한국인의 종교 인식’과 ‘비개신교인의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는데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률(2012년 90% → 2023년 71%)과 주일 예배 외 활동비율(2012년 51% → 2023년 40%)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나안성도의 교회 재출석 의향과 교회 비활동자의 활동 의향은 각각 43%와 45%로 크게 낮지 않은 것이 희망적이다. 코로나 시기 전후로 신앙생활의 변화도 눈에 띈다.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으로 ‘예배/설교’ 요인은 줄고, ‘미디어’의 영향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신앙 활동도 ‘대면 모임’보다 온라인과 방송 청취 등 비대면 ‘매체’ 이용이 더 높았다.

이번 <넘버즈 209호>에서는 개신교인들의 교회 생활과 구체적 신앙 활동을 파악하는 한편 출석 교회에 대한 평가 즉, 만족과 불만 요인 분석을 통해 교인들의 니즈와 어려움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넘버즈 발행 목차

- ①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
- ②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 ③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④ 목회자의 목회 활동 실태
- ⑤ 목회자의 목회 인식 및 라이프스타일

\*일정과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 조사개요

구분	개신교인 조사	비개신교인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2,000명(유효표본)	1,0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표본 추출 방법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비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 2.2%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 3.1%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조사 기간	2023년 01월 09일 ~ 16일(8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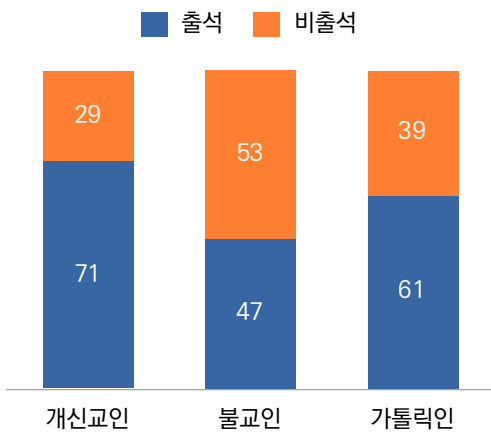
# 01

##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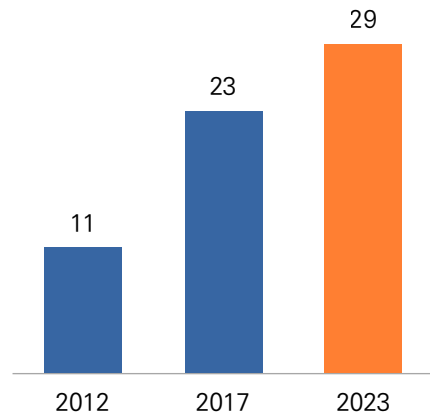
### 교회(성당) 출석자, 개신교인 71%, 가톨릭교인 61%!

- ▶ 종교가 있는 만 19세 이상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교회, 사찰, 성당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종교시설 출석 비율은 개신교인 71%, 가톨릭인 61%, 불교 47% 순으로 개신교인이 가장 높았다.
- ▶ 지난 182호(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편)에서 제시했듯이 개신교인 중 가나안성도가 2012년 11%에서 2023년 29%로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 가나안성도 급증세가 주목된다.

[그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사찰/성당 여부 (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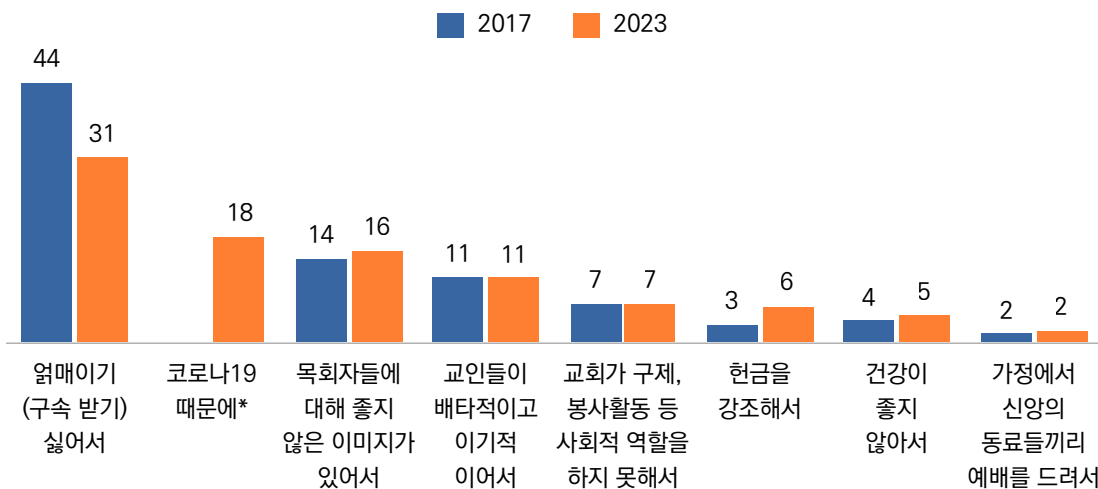
[그림] 교회 비출석 개신교인(가나안성도) 추이 (개신교인, %)



## ◎ 가나안성도 급증, 코로나 요인 크게 작용!

- ▶ 가나안성도에게 교회 비출석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엄매이기 싫어서’가 3명 중 1명꼴(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등의 순이었다.
- ▶ 2023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는 보기로 새롭게 제시했는데 이 요인이 전체 2번째로 응답되어 가나안성도 급증에 코로나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가나안성도의 교회 비출석 이유 (가나안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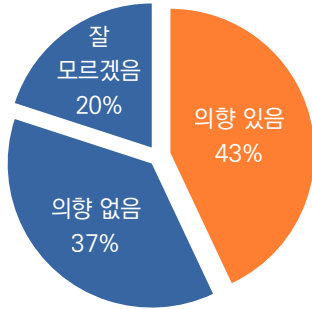


\*2023년 조사항목 신규 추가

## ◎ 60세 이상 가나안성도 절반, ‘다시 교회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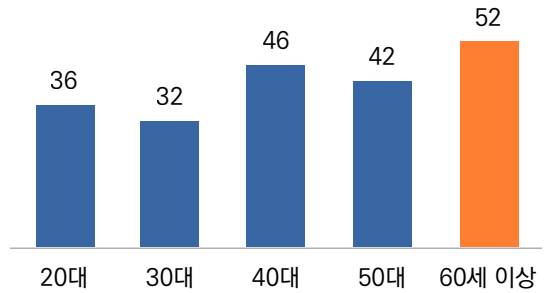
- ▶ 가나안성도들의 교회 재출석 의향은 어느 정도일까? 다시 교회를 출석할 ‘의향이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43%, ‘의향이 없다’ 37%로 가나안성도 10명 중 4명 정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의향을 보였다.
-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나안성도의 재출석 의향률이 52%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가나안성도의 교회 재출석 의향\* (가나안성도)



\*4점 척도임

[그림] 연령별 가나안성도 교회 재출석 의향 ('의향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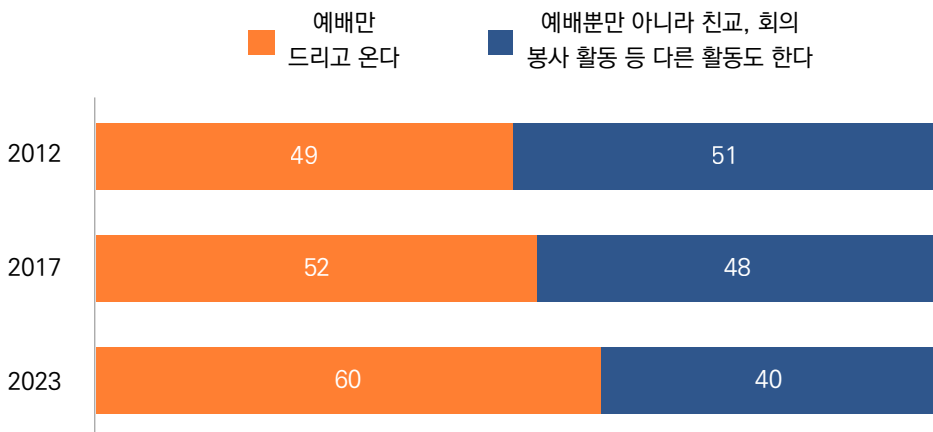
## 02

###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 개신교인 10명 중 6명,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온다’!

- ▶ 출석 교인을 대상으로 주일 교회 활동에 대해 물은 결과, 2023년 기준 ‘예배만 드리고 온다’ 60%, ‘예배뿐만 아니라 친교, 회의, 봉사활동 등 다른 활동도 한다’ 40%로 예배 이외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교인이 10명 중 6명 꼴로 나타났다.
- ▶ 조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예배 외 다른 활동도 하는 경우’는 2012년 51%에서 2023년 4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예배 외 친교, 봉사활동 등 신앙 활동의 감소는 헌신자 감소와 공동체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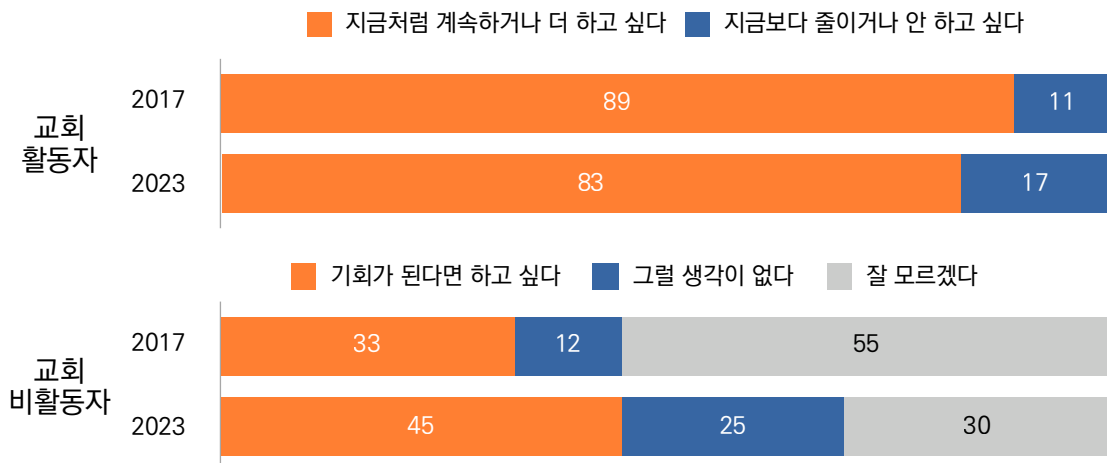
[그림] 주일 교회 활동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교회 비활동자의 45%, ‘기회가 된다면 교회 활동 하고 싶다’!

- ▶ 현재 교회에서 예배 이외 친교, 사역,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교인과 아무 활동하지 않는 교인에게 각각 향후 교회 봉사 또는 사역 활동 의향에 대해 물었다. 먼저 ‘교회 활동자’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83%)이 ‘지금처럼 계속하거나 더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줄이거나 안 하고 싶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 ▶ 반면, 비활동자의 절반 정도(45%)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 봉사 또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7년 조사 대비 12%p 증가한 수치이다. 교회 봉사 또는 활동에 대한 비활동자의 향후 의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향후 교회 봉사 또는 활동 의향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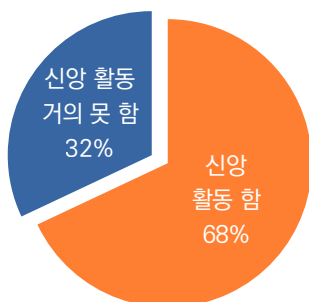
# 03

## [개신교인의 신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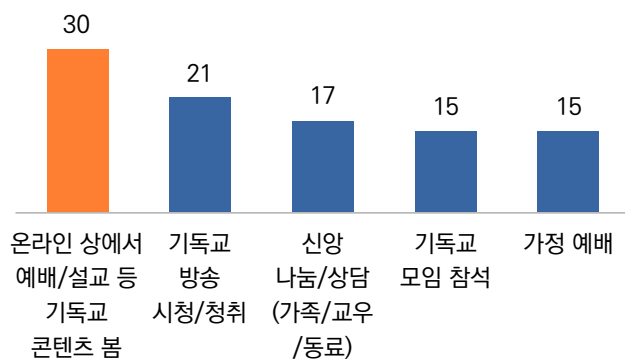
### 개신교인의 신앙 활동, ‘대면 모임’보다 ‘매체’ 이용 높아!

- ▶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내용을 묻은 결과, 신앙 활동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은 10명 중 7명(68%) 정도였고, 이들이 행한 신앙 활동의 내용으로는 ‘온라인 상에서 예배/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 봄’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21%, ‘신앙 나눔/상담’ 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 개신교인의 신앙 활동을 보면 ‘직접 참여하여 나누는 것’보다 ‘매체에서 보고 듣는 활동’이 많은 편이었다. 직접적·대면적 활동보다는 간접적·비대면적 형태의 활동이 절반 이상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일주일간 신앙 활동 여부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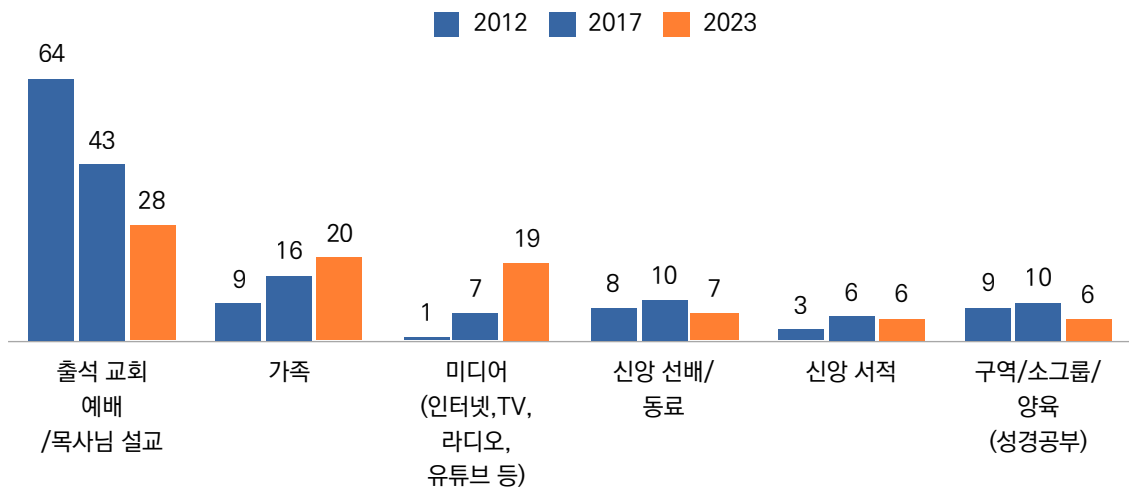
[그림] 일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신앙 활동 하는 개신교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 ◎ 신앙 성장 도움 요인, ‘예배/설교’ 줄고 ‘미디어’ 가파르게 상승!

- ▶ 개신교인은 무엇을 통해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을까? ‘출석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를 28%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가족’ 20%, ‘미디어’ 19% 순이었다.
- ▶ ‘출석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 요인은 2012년 64%에서 2023년 28%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디어’와 ‘가족’을 꼽은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디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7%에서 2023년 19%로 3배 가까이 급증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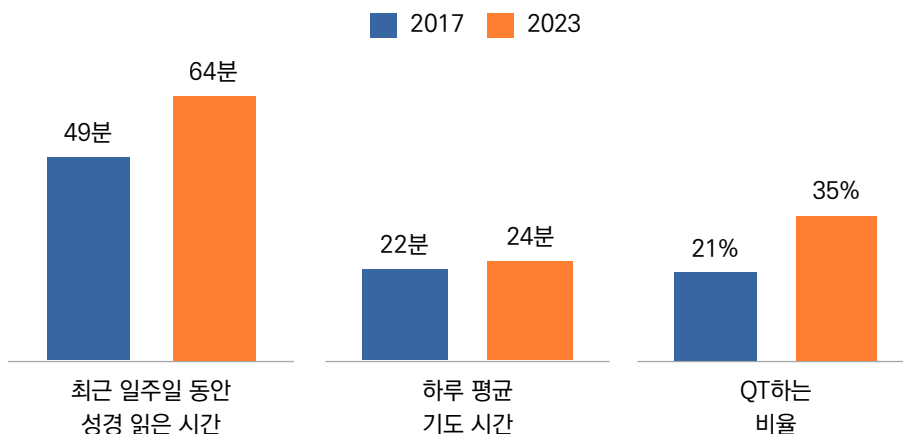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 (개신교인, 상위 6위, %)



## ◎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개인 경건 시간 늘어!

- ▶ 개인의 경건 시간(개신교인 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 읽은 시간’, ‘기도 시간’, ‘QT 유무’를 각각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은 일주일 평균 성경을 64분 읽고, 하루 평균 24분 기도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QT를 하는 개신교인은 35%, 즉 3명 중 1명 남짓으로 조사됐다.
- ▶ 3가지 개인 경건 활동 시간은 2017년 대비 모두 증가했고, 특히 ‘성경 읽은 시간’과 ‘QT 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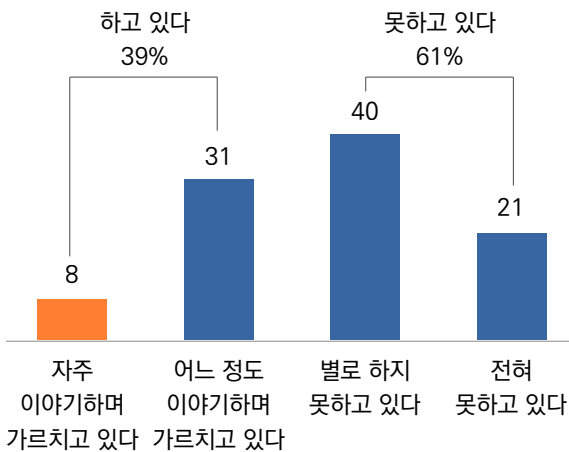
[그림] 개인 경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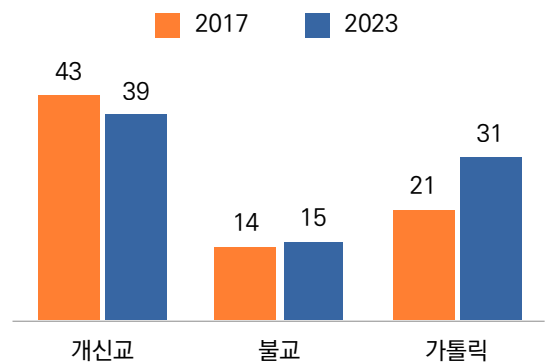
## ◎ 개신교인 부모 8%만이 실제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정

- ▶ 자녀가 있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녀 신앙 교육 여부를 물었다. 개신교인의 경우 '하고 있다 (자주+어느 정도)' 비율이 39%로 나타났는데, 그 중 '자주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8%에 불과했다. 삶과 생활이 곧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특성임을 간주한다면 실제 신앙교육을 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 ▶ 평소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자주+어느 정도)비율은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가장 높았으나 5년 전 대비 4%p 감소했다.

[그림] 개신교인의 자녀 신앙 교육 정도  
(개신교인 중 자녀 있는 자, %)



[그림] 자녀 신앙 교육 '하고 있는' 비율  
(‘자주+어느 정도’ 비율, 종교인 중 자녀 있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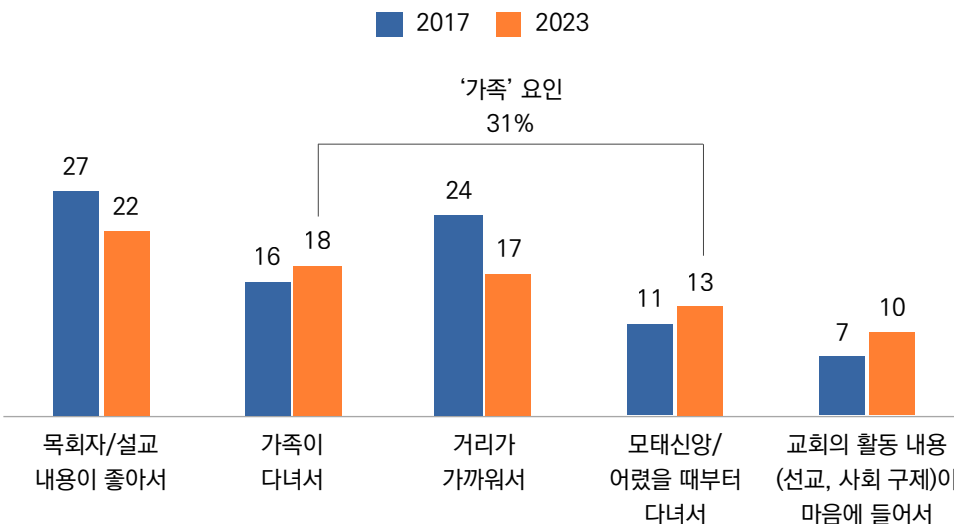
## 04

### [출석 교회 평가]

## 출석교회 선택 이유, '목회자 설교' 영향 줄고 '가족' 요인 증가

- ▶ 개신교인에게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묻은 결과,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아서'가 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가족이 다녀서', '거리가 가까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 ▶ '가족이 다녀서'와 '모태신앙/어렸을 때부터 다녀서'를 '가족'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목회자 설교' 요인은 감소하고 '가족' 요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출석교회 선택 이유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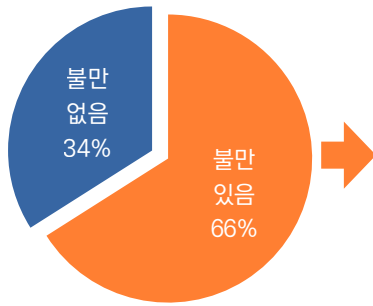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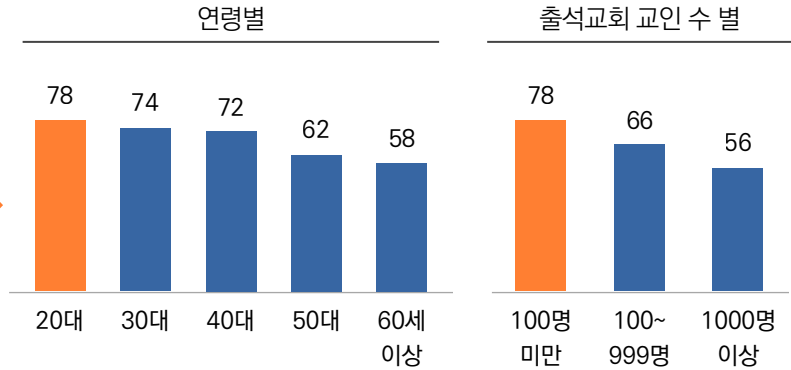
## ◎ 현 교회 불만, ‘젊은층, 소형교회’에서 높아!

- ▶ 출석 교인을 대상으로 현 교회에 대한 불만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불만 있음’이 66%로 출석 교인 3명 중 2명은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출석교회 교인 수가 적을수록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현 교회 불만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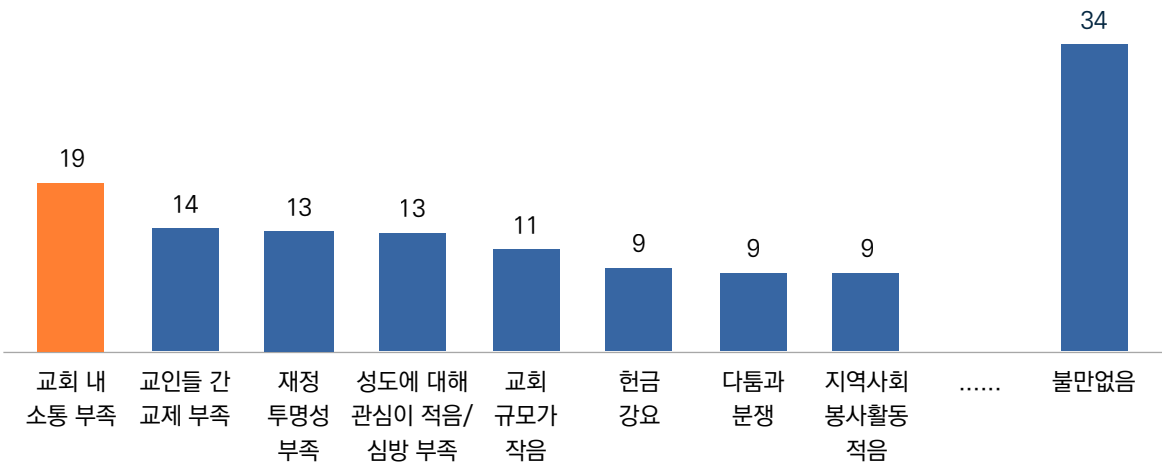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현 교회 불만 있는 비율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현 교회 불만 사항, ‘교회 내 소통 부족’ 가장 많아!

- ▶ 교회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교회 내 소통 부족’(19%)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다음으로 ‘교인들 간 교제 부족’, ‘재정 투명성 부족’ 등의 순이었다. 2위로 응답한 ‘교인 간 교제 부족’도 넓게 보면 ‘소통 부족’과 연결되어 있어, 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소통 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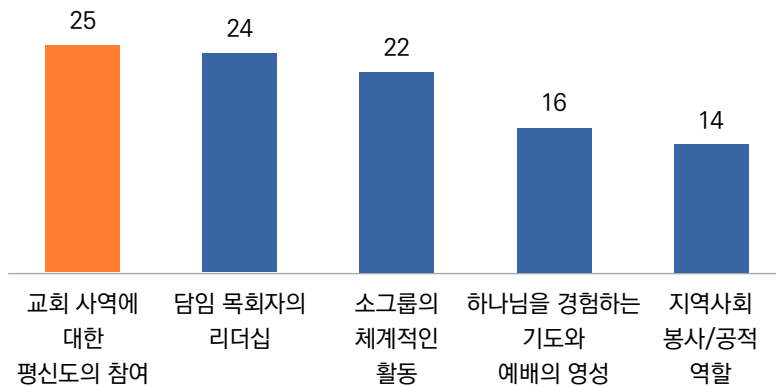
[그림] 현 교회 불만 사항 (불만 사항 있는 교회 출석자, 중복 응답,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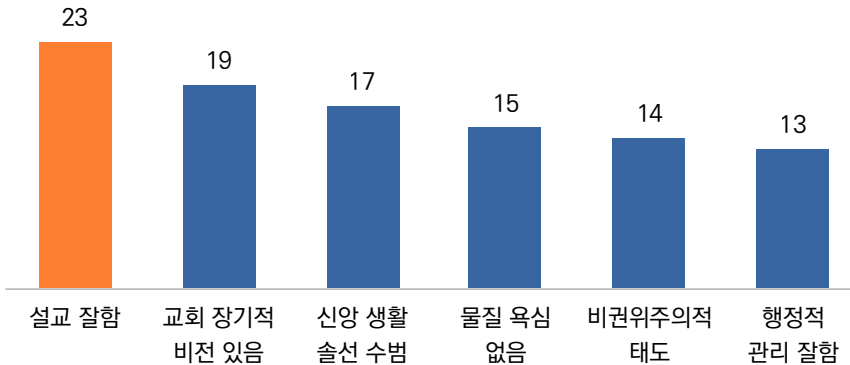
## ◎ ‘평신도의 교회 사역 참여’, 교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미쳐

- ▶ 현 교회와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 출석교회 만족도에는 ‘교회 사역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 담임 목회자 만족도 요인으로는 ‘설교’가 23%로 가장 컸고, 이어 ‘교회의 장기적 비전’, ‘신앙생활 솔선수범’ 등의 순이었다.
- ▶ 종합해 보면 ‘평신도의 참여’와 ‘설교뿐 아니라 교회 비전과 인품’을 갖춘 목회자를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만족도 질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림] 현 교회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향력 비율, %)



[그림] 담임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향력 비율, %)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현 교회/목회자에 대해 만족한다'를 종속 변수, 각 항목들을 독립 변수로 두고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함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는 3차 조사 이후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5차 조사(2023)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2023년 1월에 조사를 했다.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개신교인의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막 지난 직후의 조사라서 대부분의 결과에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종교와 신앙에 대한 인식은 2012년을 변곡점으로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넘버즈 206호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 207호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편에서 일부 읽을 수 있었다. 이번에 다룬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욱 굳어지고 심화하는 징후들이 여러 포착되었다.

첫 번째 징후는 ‘탈교회화’이다. 2012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인, 즉 ‘가나안성도’는 11%였지만 2023년에는 그 비율이 29%까지 증가하였다. 개신교인 10명 중 3명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가나안성도 증가율을 단순히 그대로 적용한다면 10년 후에는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이 가나안성도라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탈교회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두 번째 징후는 ‘온라인 신앙화’이다.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으로 ‘출석교회의 예배/설교’는 2012년 64%에서 2023년 28%로 급감했지만, ‘미디어’는 1%에서 19%로 급증했다. 지난 일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도 ‘신앙 나눔’, ‘모임 참석’, ‘가정 예배’보다 ‘온라인상에서 예배/설교 콘텐츠 봄’과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가 더 높았다. 개인 경건 활동 중 ‘성경 읽는 시간’과 ‘QT 하는 비율’은 2017년 조사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이나 미디어(앱)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징후는 ‘교회 신앙 활동의 약화’이다. 주일 교회 활동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60%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 조사 대비 11%p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교회에서 친교, 사역,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가 ‘지금보다 줄이거나 안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년 전 조사 대비 6%p 증가한 1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 종교화’이다. 현재 출석교회를 선택한 이유로 꼽은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아서’(22%), ‘거리가 가까워서’(18%)는 5년 전 조사 대비 하락하고 있는 반면, ‘가족이 다녀서’(18%), ‘모태 신앙/어렸을 때부터 다녀서’(13%)는 증가하고 있었다. 교회를 선택 이유로 ‘가족’ 요인이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동적인 신앙 태도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정 신앙 교육과 자녀 양육으로 교회 부흥을 강화해 볼 수도 있는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려되는 결과도 있지만 교회 출석과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되는 결과도 존재했다. 가나안성도에게 교회에 재출석할 의향을 물은 결과 ‘의향 없다’고 단정한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외 활동을 안 하는 출석자에게 향후 교회 봉사 또는 활동 의향을 물은 결과, 45%가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5년 전 조사 대비 12%p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여도, 즉 관심과 몰입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따라서 약화할 것이며 교회의 여러 행사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참여자, 봉사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교회에 대한 관여도가 약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는 관계성을 증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 사이의 두터운 관계망 형성을 통해 그 관계망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와의 연결성을 끊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책은 특히 소형교회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인 간의 관계망이 잘 형성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교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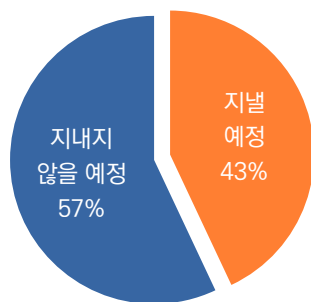
- 1.[2023 추석 계획]
- 2.[고령자 특성과 의식 변화]
- 3.[아동·청소년 우울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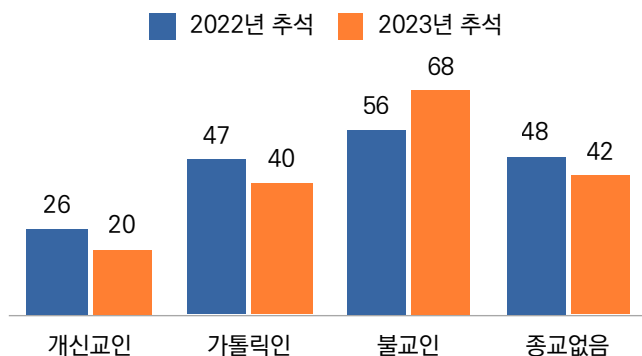
## 개신교인, 5명 중 1명, 이번 추석에 제사 지내겠다!

- ▶ 이번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국민(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석 계획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한국리서치). 우선 '이번 추석 때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지'를 물은 결과, '지내지 않을 예정' 57%, '지낼 예정'이란 응답이 43%로 10명 중 4명 정도만 '차례나 제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 ▶ 종교별로 '차례/제사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불교를 제외한 개신교, 가톨릭, 무종교에서 모두 작년 추석 대비 차례/제사 계획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신교인 중 차례/제사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이었다.

[그림] 이번 추석 때 차례/제사 여부



[그림] 종교별 차례/제사 여부 ('지낼 예정'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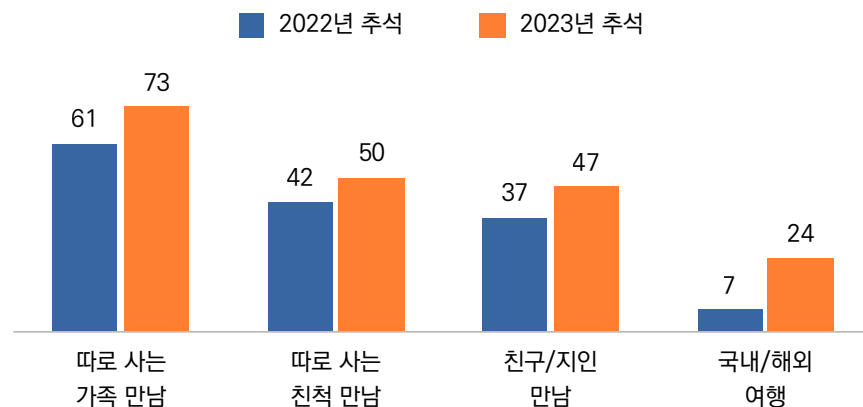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추석 모임 및 일정 계획, 2023.09.19.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9.08.~09.11.)

## ◎ 이번 추석, 작년 추석보다 '가족 만남, 여행 계획' 증가!

- ▶ 이번 추석 계획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인 '2022년 추석'과 비교해 보았다.
- ▶ 지난 추석 대비 '따로 사는 가족 만남' 계획은 61%에서 73%로 높아져 가족 모임을 갖겠다는 사람이 많아졌고, '국내/해외 여행' 계획 또한 2022년 추석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을 만나겠다는 응답도 42%에서 50%로 증가했다.

[그림] 이번 추석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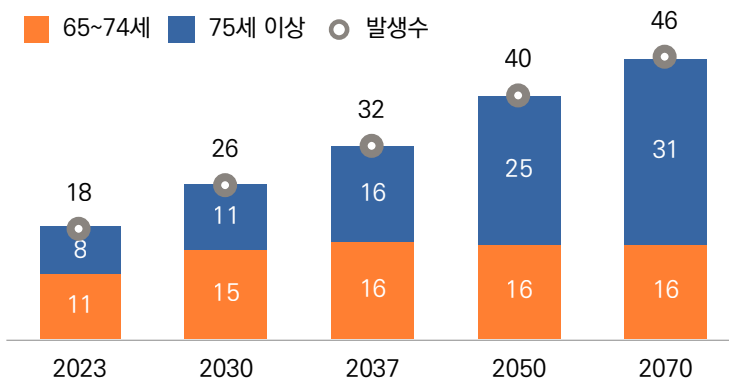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추석 모임 및 일정 계획, 2023.09.19.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9.08.~09.11.)



## 한국의 7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 2023년 8%→ 2070년 31%까지 급증 전망

- ▶ 한국의 고령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 통계청의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는데 이 분류를 토대로 살펴본다.
- ▶ 먼저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은 65세 이상 기준 2023년 18%인데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46%, 즉 우리나라 인구 절반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 65~74세층과 75세 이상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65~74세층은 향후 인구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75세 이상의 경우 2023년 우리나라 인구 비중 8%에서 2070년에는 31%로 4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고령자 연령대별 인구 비중 예상 추이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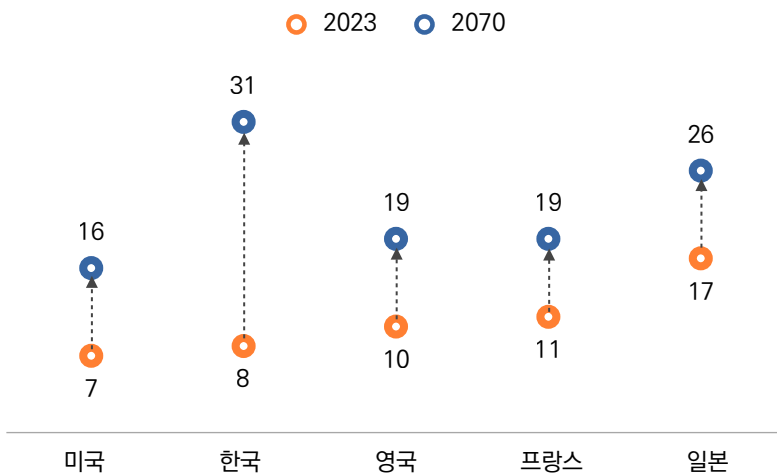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2023.06.16.

\*\*각각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 한국의 75세 이상 고령자 비율, 50년 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 ▶ 그렇다면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노인 인구(75세 이상) 비중이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2020~2070년’ 예측대로 간다면 2070년에는 31%로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7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OECD 주요 회원국 75세 이상 인구 비중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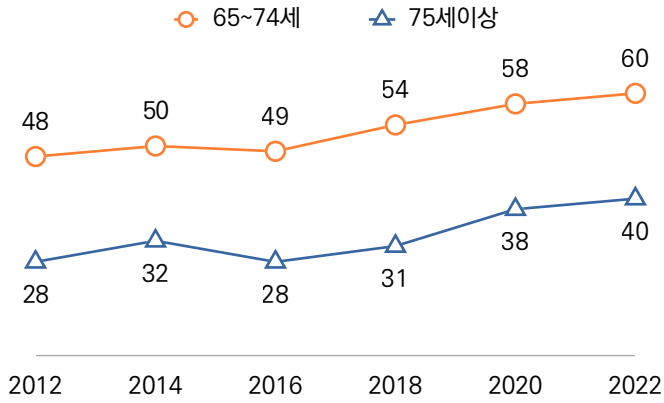
\*원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12.09.

\*자료 출처 : 통계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2023.06.16.

## ◎ 7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 ‘아직 일하고 싶다’!

- ▶ 한국 고령자들의 취업 의향을 묻은 결과, 2022년 기준 ‘65~74세’ 60%, ‘75세 이상’은 40%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7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나 취업 의향을 밝혀 주목된다.

[그림] 고령자의 취업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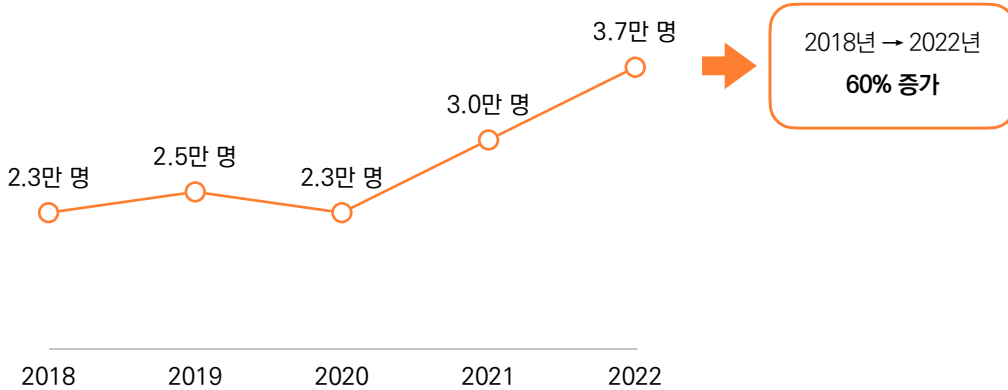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집계하여 산출  
\*\*자료 출처 : 통계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2023.06.16.



##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 60% 증가!

- ▶ 최근 아동·청소년 우울증 증가가 심상치 않다. ‘2018~2022년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김원이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만 6~17세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2.3만 명에서 2022년 3.7만 명으로 60%나 급증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학교, 지역사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상담/관리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만 6~1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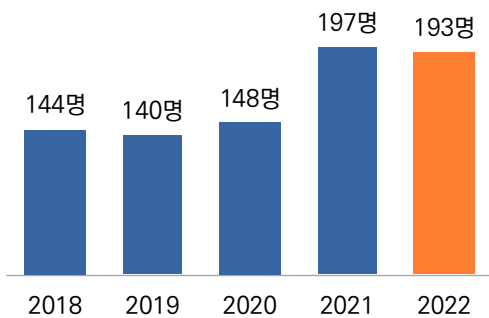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 우울증 5년 새 갑절로...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 기사 참조, 2023.09.0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7054400530?input=1195m>)

### ◎ 청소년 자살 원인,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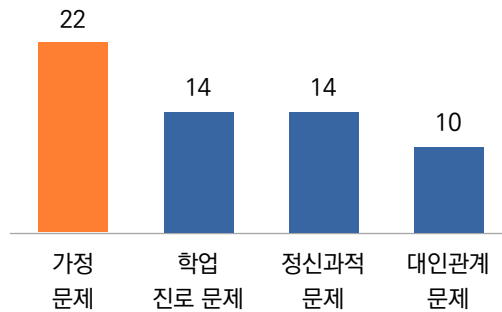
- ▶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생 기준 2018년 144명에서 2022년 193명으로 늘었고, 5년(2018~2022년)을 통틀면 8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5년간 초·중·고등 학생의 자살 원인을 보면 ‘가족갈등 등’ 가정 문제가 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 진로 문제’, ‘정신과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의 순이었다.

[그림] 초·중·고등 학생 자살 현황



[그림] 초·중·고등 학생 자살 원인\*\*

(2018~2022, 원인 미상/기타 제외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 우울증 5년새 갑절로...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 기사 참조, 2023.09.0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7054400530?input=1195m>)

\*\*가정문제 : 가족갈등, 부적절한 양육, 부모에 의한 학대 등  
정신과적문제 : 우울증, 조울,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  
대인관계 문제 : 교우 및 이성 관계, 학교폭력 등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59호 \(2023년 9월 3주\)](#)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경제 전망 등

[국민 53.7% “한미동맹 지속 강화해야”… 한미관계 인식조사](#)

국민일보\_2023.09.25.

◎ 사회 일반

[빈곤에 대한 인식 1990-2023](#)

한국갤럽 리포트\_2023.09.14.

[중장년층 5명 중 1명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 그만둔 적 있다"](#)

연합뉴스\_2023.09.21.

[지난해 사망자 '역대 최다' 37만명…코로나19 영향에 17.4% 급증](#)

연합뉴스\_2023.09.21.

[살 만한 '파워 시니어' 조준하는 노인 일자리…뒤틀린 빈곤 노인?](#)

국민일보\_2023.09.18.

[추석연휴 때 주택 화재 많아…'음식물 조리'가 주된 원인](#)

연합뉴스\_2023.09.21.

[TV 안 보는 이유 '이것' 때문…10명 중 6명 “편파방송에 불쾌”](#)

매일경제\_2023.09.19.

[성인 10명 중 7명 ‘팁 문화’ 부정적…“강요당하는 기분 부담돼”](#)

매일경제\_2023.09.20.

["한국 가고 싶어요" 2030女 열광…日 관광객 100만명 넘겼다](#)

한국경제\_2023.09.19.

[비싼 폰은 잘 팔리고, 가성비폰은 안 팔린다…왜?](#)

한겨레\_2023.09.20.

◎ 기업 / 경제

[초과근로 직장인 52% "수당 제대로 못 받아"](#)

연합뉴스\_2023.09.21.

["추석휴무 시행 기업 중 82.5%, 연휴 6일간 전체 휴무"](#)

연합뉴스\_2023.09.21.

[日 근로자 연령 1.5세 오를 때 韓은 3.8세 꺾충 '고령화 과속'](#)

매일경제\_2023.09.19.

[상반기 기업 파산 신청 역대 최대치… 코로나19 때보다 심각](#)

국민일보\_2023.09.2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져...‘윤석열식 외교’ 용도폐기 위기](#)

[한겨레\\_2023.09.25.](#)

[시장 예상 뒤집었다, 7%대 고금리에도 미국 집값 치솟는 까닭](#)

[조선일보\\_2023.09.24.](#)

[서러운 빈곤국...산불 대기오염 피해, 부유국보다 4배 컸다](#)

[연합뉴스\\_2023.09.21.](#)

[책상 아래 바쁜 손... 美 치과 여직원이 떴던 버는 이유](#)

[조선일보\\_2023.09.25.](#)

◎ 건강

[“체중 관리에는...아침 7~9시 중·고강도 운동 효과적”](#)

[동아일보\\_2023.09.25.](#)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 노년기 치매 위험 높다](#)

[조선일보\\_2023.09.24.](#)

◎ 기독교 / 종교

[총대 10명 중 6명 “목사·장로 정년 연장에 반대”](#)

[더미션\(국민일보\)\\_2023.09.25.](#)

◎ 기획기사 : 창간기획 - 한·미동맹 70주년, (중앙일보)

[반중정서 더 큰 2030 "주한미군, 中에 대한 대응도 해야" 50% \\_2023.09.25.](#)

["韓, 미·중 갈등 격화땀 중립 유지" 50%..."美 지지해야" 45% \\_2023.09.25.](#)

["한미동맹 넓혀야" 이 제안에...보수 86%, 진보 80% 찬성했다 \\_2023.09.25.](#)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 연구소 소식 1.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 | 연구소 소식 2.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출판 기념회 |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023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한국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교계 언론사 및 관계자, 네이버즈 구독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 | 연구소 소식 3. 휴간 안내 |

다음주(10월 3일)는 추석 명절 연휴로 [네이버즈]를 한 주 쉽니다.